

브리지가
뭐지?

KOREA CONTRACT BRIDGE LEAGUE

처음 만나는 브리지

Start
Your Bridge Journey
Today



KOREA CONTRACT
BRIDGE LEAGUE

반가워! 브리지

세계가 사랑하는 마인드 스포츠

브리지는 단순한 카드 게임이 아닙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즐기는 지적인 스포츠이자, 논리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력을 기르는 최고의 두뇌 훈련입니다.

체스와 바둑과 함께 세계 3대 마인드 스포츠로 꼽히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의 언어로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초보자부터 세계 챔피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장 열린 스포츠이자 평생의 취미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전통, 브리지의 역사

브리지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카드놀이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휘스트(Whist)'라는 게임을 거쳐 지금의 브리지로 발전했습니다. 현대 브리지는 1925년, 미국의 해럴드 밴더빌트(Harold Vanderbilt)가 현재 사용되는 규칙의 '컨트랙트 브리지(Contract Bridge)'로 완성하였고, 그 후 브리지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처칠 영국 총리, 아인슈타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유명 인사들도 브리지를 즐겼습니다.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와 사론 오스버그와 함께 브리지 게임을 즐기고 있다.
(Nati Harnik, AP, 2017)



"Bridge is the most entertaining and intelligent card game the wit of man has so far devised."

“브리지는 지금까지 인간의 지성이 고안한 가장 재미있고 지적인 카드 게임입니다.”

—
윌리엄 서머셋 몸

W. Somerset Maugham
잉글랜드의 소설가 겸 극작가

"Bridge is such a sensational game that I wouldn't mind being in jail if I had three cellmates who were decent players and who were willing to keep the game going 24 hours a day."

“브리지는 정말 매혹적인 게임입니다. 세 명의 관찮은 브리지 파트너와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감옥에 있어도 관찮을 것 같아요.”

—
워런 버핏

Warren Edward Buffett
미국의 투자가, 기업인

"Bridge helps you think. It's a game you can play your entire life and keep getting better and better."

“브리지를 하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평생 두고두고 즐기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
빌 게이츠

Bill Gates
Microsoft 창업주 겸 초대 CEO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한 마인드 스포츠

세계브리지연맹(WBF)은 1995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인정을 받은 공식 마인드 스포츠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리지가 단순히 두뇌를 사용하는 게임을 넘어, 올림픽 정신과 부합하는 스포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브리지 국가대표 선수단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태평양 대회와 세계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브리지연맹
(World Bridge Federation)



한국브리지협회
(Korea Contract Bridge League)

우리나라 브리지의 발자취

브리지는 20세기 초 안중근 의사의 조카딸 안젤라 안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군부대와 외교관 출신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 민병갈(Carl Ferris Miller) 박사는 브리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한국에서 브리지를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1993년에는 한국브리지협회(KCBA: Korea Contract Bridge League)가 설립되었고, 2007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스, e스포츠와 함께 준회원 단체로 승인되면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약 1,500명의 정회원과 2,000명 이상의 온라인 회원이 협회 활동과 교육, 경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드 브리지 팀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브리지 대표 선수단 좌측부터 이수익, 김대홍, 강성석, 노승진 선수, 다니엘 푸에르토 모레노 코치

INTERVIEW



경기 중 카드를 분석하며 전략을 구상하는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 회장

“브리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김혜영 한국브리지협회 회장은 브리지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브리지를 처음 접한 그는, 이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혼성팀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25 APEC 성공개최기원 브리지 국제 토너먼트’를 주최해 15개국 100여 명의 선수를 경북 경주에 초청했습니다.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직접 연락해 초청했어요. 브리지를 통해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문화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처럼, 그는 브리지를 통해 국경을 넘는 우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김 회장에게 브리지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아팠던 시절, 브리지는 저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이제는 APEC의 무대에서도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해 브리지

두뇌 발달의 완벽한 도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의 기억력, 집중력, 추리력,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훈련의 일환으로 브리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예절까지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역시 브리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브리지를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7년부터 명지대학교에서 학점인정 교양과목으로 브리지를 운영한 바 있고, 현재는 서울 청담중학교와 은석초등학교, 세종 연양초등학교와 새움중학교, 전주 근영중학교, 완주 봉서중학교, 원주 대성중학교 등 전국 12개 학교에서 자유학기과 방과후, 동아리 수업으로 브리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교 활동

브리지는 4명이 팀을 이루는 파트너십 게임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동일한 규칙으로 즐기며,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카드와 규칙은 모두 같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브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브리지의 가장 큰 매력은 평생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되어도 20세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며, 실력에 따른 명확한 레벨 시스템이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브리지 게임은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2025년, <제1회 서울시브리지를희망배 유소년 브리지 전국 대회>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



2025년, <제2회 대구경북 브리지 페어 토너먼트>에 참가한 선수들.



해브자! 브리지

브리지 게임 방법

브리지는 4명이 2명씩 파트너를 이루어 2:2로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조커를 뺀 52장의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며, 한 게임은 약 7~8분 정도 걸립니다.

브리지에서는 말을 하거나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안됩니다. 대신, 카드 플레이만으로 파트너의 의도를 이해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1 "카드를 나누는 순간,
승부는 시작된다."

딜링(Dealing)

4명의 선수가 2개의 페어로 나누어 사각테이블에 앉아 플레이하게 됩니다. 각 페어는 North(북)-South(남), East(동)-West(서)로 마주앉습니다. 조커를 제외한 52장의 카드를 4명이 똑같이 13장씩 나눠 가집니다.



2 "파트너와 교감하며
전략을 세운다."

비딩(Bidding)

카드를 살펴본 후, 각자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트릭 수와 트럼프 무늬를 정해 차례대로 비딩합니다. 최종 계약은 마지막 비드 후 3명의 선수가 연달아 패스를 하면 성립합니다.



3 "트릭을 쌓으며 협력과
추리를 겨룬다."

플레이(Play)

가장 높은 비딩을 선언한 팀이 컨트랙트(계약)를 맺고, 그 팀에서 계약한 무늬를 가장 먼저 비드한 플레이어가 디클레어러(계약자)가 됩니다. 한 번의 플레이를 트릭(trick)이라고 하며, 총 13번의 트릭을 진행합니다.



4 "약속을 지키면 점수와
명예가 주어진다."

스코어링(Scoring)

컨트랙트를 성공(make)하면 점수를 얻고, 실패(down)하면 상대팀이 점수를 얻습니다. 여러 게임을 통해 누적 점수로 최종 승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승패를 넘어, 협력과 전략의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알아봅시다!



비딩 (Bid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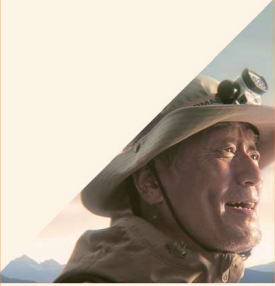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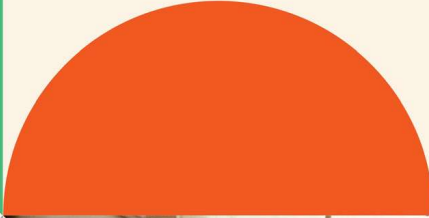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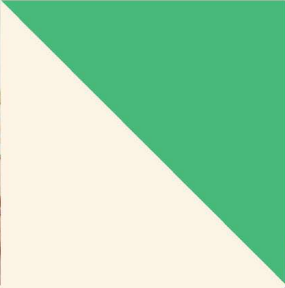
카드로 하는 대화입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각자 자신의 카드가 어떤지를 말이나 표정 없이 카드만으로 '암호처럼' 주고 받습니다. 파트너와 서로의 패를 유추하면서 가장 유리한 컨트랙트를 정합니다.

비딩 용어

PASS, 1~7 레벨. 트럼프(♣, ♦, ♥, ♠), 노트럼프(NT). 상황에 따라 더블(X) 및 리더블(XX)이 사용됩니다. 앞에 붙는 숫자는 기본 6트릭에 추가로 몇 개를 더 이기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비딩 예시

1♠(스페이드를 트럼프로 정하고 6+1, 최소 7개 트릭을 이기겠다), 2♣(클럽을 트럼프로 정하고 6+2, 최소 8개 트릭을 이기겠다), 3NT(트럼프 없이 6+3, 최소 9개의 트릭을 이기겠다), PASS(참여하지 않겠다)



Sincerely yours
1955-2025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현대해상의 70년이 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더 기대하는 마음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
반드시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대해상의 70년

앞으로도 변함없이,
마음이 합니다

